

대구주보

연중 제22주일

2014. 8. 31. (가해) 제1906호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_053)250-3048~9_ <http://www.daegujobo.or.kr>



한티순교성지 야외 제대
사진_홍창익 비오 신부

† 오늘의 전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려야 한다.”(마태 16,21-27 참조)

베드로 사도는 수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로 전 구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 사도는 메시아가 그럴 수는 없다고 예수님을 반박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택하신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금력도 권력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다 보면 필연적으로 십자가에 이르게 됩니다.

제1독서 예레 20,7-9

제2독서 로마 12,1-2

복 음 마태 16,21-27

입 당 송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화 답 송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영성체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하느님의 일, 사람의 일

이성구 사도요한 신부 | 평화본당 주임

그래도 그렇지 “사탄”이라니. 베드로 사도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여 크게 칭찬을 받은 사도들의 으뜸이 아닙니까? 게다가 교회의 반석이요,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게 된 제자가 아닌가요? 그런 그를 주님께서는 아주 호되게 질책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최근 본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목평의회에서 가을이 되면 늘 해오던 본당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할까? 예년처럼 운동회로 할 것인가? 하는 등의 의견을 나누던 중 교우 한분이 특별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학교를 빌려서 무대도 거창하게 만들고 외부 손님들도 초청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는 행사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바자회를 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성당에서 이뤄지는 행사는 본당에 속해있는 교우들을 중심으로 우리끼리 벌이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교우들은 평소에도 무료급식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교회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감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생각해보면 큰 잔치를 벌여 우리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일도 좋지만 그 보다는 이웃의 가난과 고통을 조

금이나마 덜어드리자는 목적으로 바자회를 하면 ‘본당의 날’ - 우리 동네에 본당 공동체를 설립하신 하느님의 뜻을 더 잘 따르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본당의 날을 앞두고 가졌던 이 회의에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척 행복 했습니다. 떠들썩하게 행사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도 좋겠지만 이웃돕기 나눔 바자회의 잔치도 하느님 보시기에 더 기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말입니다. 작고 가난한 이웃 안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섬기고자 하는 교우들의 지향이 참 고맙고 존경스러웠습니다.

며칠 전, 우리를 찾아오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분의 일관된 모습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병들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찾아 나서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몸소 우리보다 앞서가며 실천하시는 착한 목자의 감격스러운 가르침에 저희들의 이 작은 선택도 미약하나마 복음적이고 사랑의 증거가 되며 하느님의 일에 동참하는 고백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황님은 선출된 직후, 평화를 위한 그 무거운 직무를 수락하시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가끔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필문**

신앙칼럼

오늘도 그랬습니다

허창옥(데레사) | 계산본당

늦은 밤입니다. 촛불을 밝히고 앉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시간은 미지근하게 흐르고 분심이 끼어듭니다. 영성이 깊지 않은 까닭이지요. 아침마다 십자가상 앞에서 성호를 긋고 “주님, 오늘 하루도 제게 열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오겠습니다.” 기도하고 출근을 합니다. 드물게는 깊이 고개 숙이고 마음을 모으지만 대개는 시간에 쫓겨서 습관적으로 합니다. 아시지요? 우리가 바쁠 때, 혹은 무심할 때 얼마나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성호를 긋는지. 오늘도 그랬습니다.

일하는 사이사이 세상 온갖 일에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뉴스를 보고 분노하고, 영리에 적당히 타협하고, 마주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도 합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만 들면 십자가상, 성모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얼른 말씀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찬미합니다.” 마음이 뜨거웠는지 물으신다면 그 또한 타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종일 그랬습니다.

해가 저물어 일을 마치고 신천을 끼고 퇴근을 합니다. “또 하루가 저물었습니다.”라고 낮게 중얼거립니다. ‘또’는 그저 그런, 그러니까 권태가 느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에는 안도와 감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펄쩍 펄쩍 없이 하루를 보냈다는 것,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주셨다는 것, 그 사실에 안도하고 감사

한 것입니다. 오늘도 진정 그러했습니다.

촛불이 고요히 타고 있습니다. 촛불 옆에는 성모상이 있고 그 뒤에 예쁜 성수함이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현존을 이렇듯 올려다 뵙고서야 깨닫습니다. 종일토록 배고프지 않았습니 다. 가슴 칠일도 생기지 않았습니 다. 그럼에도 무언가가 모자라서 이런저런 불만이 생겨났습니 다. 물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루에도 몇 번 화살기도를 쏘아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대개 가슴에서 나오지 않고 입술에서 뇌어지곤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살기에 기뻐할 줄 또한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 다.

분심 중에 묵상을 마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성모님께 간구하는 청원기도입니다. 매순간 구할 일들만 생각합니다. 감사기도는 늘 뒷전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가 깊을 대로 깊었습니다. 이 시간 고요 속에 홀로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는 일은 전 생애를 돌아보는 일과 같습니다. 하루나 한 생애나 주님 앞에선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살아온 모든 날들과 살아갈 날들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드물게 찾아오는 뜨거움입니다.

촛불을 끕니다. 가는 연기가 한 줄기 휘어 오르더니 금방 사라집니다. **필문**



네 탓이요?

이동철 대건안드레아 신부 | 두산본당 보좌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다 보면 종종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애가 먼저…”

“아니예요! 내가 먼저 그랬잖아.”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당신이 그랬잖아!”

“뭐라고? 여기 계신 분들! 좀 보소! 자기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네! 법으로 하자고! 법으로!”

아이들의 싸움이나 어른들의 싸움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탓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나중에 들어보면 서로 잘못했기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내면에 있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때문에 나의 잘못은 덮어두고 싶고 나의 잘못을 덮기 위해 타인의 잘못을 부각시키려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잘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과의 의견충돌이 있는 후, 내면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이게 최선이었어. 그래서 나는 정당해! 나는 잘못이 없어! 그냥 살면 돼! 다음에 만나면 더 잘해주지 뭐.’ 이 역시 자기보호본능에서 나옵니다. 앞에서 있었던 두 가지 경우와 저의 경우, 과연 그렇게 한다고 나의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일까요? 있던 잘못이 없어질까요? 그리고 그렇게 보호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 질까요?

이처럼 부족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진리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일른 타협하여라.”(마태 5,23-25)

하느님께로 가는 진리의 길에서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느냐? 법에 물었을 때 어떤 판결이 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두 사람이 충돌했을 때, 그 상황을 ‘사랑으로 얼마나 잘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화해와 용서를 통한 사랑, 저부터 실천해야겠습니다. **필문**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수녀가 된 헐리우드 여배우



1957년 엘비스 프레슬리와 “러빙유(Loving You)”로 시작하여, 스티븐 보이드, 몽고메리 클리프트, 조지 해밀턴, 로버트 와그너 등의 상대역으로 연기하며 1950년대 청춘스타로 명성을 날렸던 아름다운 여배우 돌로레스 하트. 그녀는 24세에 돌연 배우생활을 청산하고 하느님을 평생 배우자로 선택하여 베네딕도 관상 수녀회에 입회하여 75살이 된 지금까지 수도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촬영할 당시 교황 요한 23세를 알현한 것이 성소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교황님, 저는 클라라 역을 맡고 있는 여배우 돌로레스 하트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요한 23세 교황님

께서는 뜻밖에도 “Tu sei Chiara!” (아닙니다, 당신은 클라라입니다!)라 이탈리아어로 답하셨고 훗날 그녀는 교황님의 이 말이 자신의 영혼을 뒤흔들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돌로레스 하트 수녀의 일생을 담은 “하느님께서는 엘비스보다 크다.(God is the bigger Elvis)”라는 다큐멘터리는 2012년 오스카상 다큐멘터리 부분 수상 후보로 올라 1959년 이래 53년 만에 다시 레드 카펫을 밟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수도원 생활은 주님의 은총과도 같지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내 삶 속에 그분이 들어왔어요. 하느님께서는 엘비스보다 훨씬 위대하답니다.” **필름**



금주의 성인

8월 31일	성 라이문도 논나토(추기경, 증거자, 1204~1240년), 성 아이다노(주교, 린디스파른, 651년) 성 바울리노(주교, 트리어, 358년), 성녀 암미아(순교자, 270년)
9월 1일	성 기드온(구약인물, 판관), 성녀 베레나(동정녀, 3세기) 성 여호수아(구약인물, BC 12세기경), 성녀 안나(신약인물, 예언자, 1세기) 성 에다지오(은수자, 수도원장, 725년경), 성 루포(주교, 상스, 623년)
9월 2일	성 아그리콜라(주교, 아비뇽, 700년), 성 안토니노(순교자, 파미아, 4세기경)
9월 3일	그레고리오 1세(교황, 교회학자, 540~604년), 성녀 도로테아(동정 순교자, 1세기) 성 마카니시오(주교, 아일랜드, 514년), 성녀 산달라(순교자, 코르도바, 855년) 성 시메온(은수자, 주행자, 517~592년), 성녀 테클라(동정 순교자, 1세기)
9월 4일	성녀 로사(동정녀, 3회원, 비테르보, 1234~1252년), 성 보니파시오 1세(교황, 422년) 성 마리노(부제, 은수자, 산 마리노, 4세기), 성 모세(구약인물, 예언자, 율법학자) 성 울탄(주교, 아르드브라칸, 657년), 성 마르첼로(신부, 순교자, 리옹, 178년)
9월 5일	성 라우렌시오(총대주교, 증거자, 베네치아, 1381~1456년) 복녀 (마더)테레사(설립자, 수녀원장, 콜카타, 1910~1997년) 성 베르티노(수도원장, 생베르탱, 700년), 성 아르콘시오(순교자)
9월 6일	성 레토(주교, 순교자, 아프리카, 484년경), 성녀 베가(수녀, 7세기) 성 베르트란드(수도원장, 가리규, 1230년경), 성녀 베아타(순교자, 상스, 273년) 성 엘레우테리오(수도원장, 스폴레토, 6세기), 성 즈카르야(구약인물, 예언자, BC 6세기)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9월 3일 수요일은

(故) 김규태 디모테오 신부님 (故) 박상태 루도비코 신부님 선종 10주기,
(故) 장태식 리노 신부님 선종 2주기입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전문질환센터> 개원식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8월 20일(수) 오후 2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데레사관 3층 데레사홀 강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유일의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전문질환센터' 개원식에 참석하셨다.

기사 및 사진 제공: 월간 <빛>



■ 시북경축문화예술제 개막식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8월 22일(금) 오후 2시 교구청 교육원 대강당 앞에서 열린 시북경축문화예술제 개막식에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시고, 사진과 미술, 전래 꽃꽂이 작품들을 둘러보셨다.

■ 제6회 젊은이 음악캠프



교구 청년국(국장: 배상희 마르첼리노 신부)에서는 대구가톨릭생활성가협회와 함께 8월 23일(토)~24일(일)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 청통수련원에서 교구 내 10개 본당 청소년과 청년 94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6회 젊은이 음악캠프를 개최했다.

자랑스럽게만 생각 말고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9월 1일(월) 11:00 성동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9월 1일(월) 11:30 범어성당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9월 1일(월) 11:00 계산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9월 1일(월) 19:30 꾸르실로 교육관 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9월 1일(월) 11:00 죽도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9월 6일(토) 11:00 대안성당
푸른군대는 추석연휴관계로 9.6(토) 첫 토요신심미사가 없습니다.		-	-

성소 | 피정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9.13(토) 10:00, 다사성당

주제: 환희의 어머니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2박 3일 무료 치유 피정

기간: 9.19(금) 18:00~21(일) 15:00

장소: 청주교구성령새신봉사회(무료숙식)

출발: 시민회관 13:00,

성서홈플러스 13:40

문의: (010)4006-6482 / (043)213-9103

예수성심에로의 초대

기간: 9.27(토)~28(일) / 10.25(토)~26(일)

장소: 예수성심시녀회(대구)

대상: 길을 찾는 미혼 여성

신청: (010)2649-2045

교육 | 모집

평신도신학교육원 신학 및 성경강좌 수강생모집

교회론, 미사와 가톨릭신앙, 철학, 여성과 존엄, 그리스도교 미술의 세계,

성경인물40인, 부모교육, 복음의기쁨, 신앙의무대역사와그문화, 수도원순례, 신·구약성경과정, 신약성경입문
다음카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

관덕정 주관 순교자성월 영성 특강

일시: 9.6(토) 16:00

강사: 현익현 신부(성베네딕도수도회)

문의: 관덕정, 254-0151

가톨릭근로자회관 9월 영아성경공부반 모집

개강: 9.2(화) 월 3만 원

낮반: 탈출기, 루카(화, 금 10:10)

저녁: 탈출기, 사도행전(화, 목 19:10)

문의: (010)2578-5535, 관덕정은 잠언

칠곡, 평화의 누릿길(예술과 함께하는 토요일: 작은음악회 등)

출발: 9.20, 27(토) 9:00, 계산성당 / 2만 원

장소: 왜관수도원, 가실성당, 구상문화관 등

참조: www.dgpbcc.co.kr, 단체 신청 가능

주최: 칠곡군/대구PBC, 251-2610

양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원서교부 및 접수: 9.11(목)~22(월)

주소: 충북 청원군 옥산면

환희길 277(363-913)

문의: 교육지원실,

(043)260-5076, 8

http://www.yangeob.hs.kr

16차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원봉사자 신규교육

기간: 9.25(목)~26(금), 4층 마리아홀

선착순: 30명 / 교육비: 3만 원

대구은행, 508-10-349316-9, 장혜자

주최: 대구파티마병원

문의: 940-7059, 7415(입금후전화)

대가대 외식산업CEO과정 20기 개강

기간: 1년 2학기 10:00~17:00 중식제공

개강: 9.4(매주 목) 10:30 (감삼캠퍼스)

주최: 대가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대상: 외식식품 경영자,창업예정자

문의: 850-3177, www.oesikceo.com

2015 목포가톨릭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9.11(목)~18(목)

모집학과 및 인원: 간호(69),

사회복지(20), 유아교육(20)

인터넷 원서접수: 유웨이, 진학사

입학상담: (061)280-5102, 3, 8

이시우 신경
http://척추외과 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왕정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티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1번 출구
국민은행 옆 두번째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일본 성지 순례
이라도, 나가사키 / 오미타, 유우인(4월)
※ 출발일 - 10월 22일, 29일
- 11월 12일, 26일
- 12월 03일, 17일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
(주)성지여행 포털(유스티노)

달성피부과
ME 66차 부부의
의학박사 / 피부과전문의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아트피센터·여드름·흉터·주름·탈모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566-4333

미소나리
출장부페
예식부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부페
대표 양 애 향(마리아)
☎ 사회적기업 (주)서구엘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리.kr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초음파백내장/라섹수술
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전화영어/전화중국어
(www.encphone.com)
영어: 기초·중·고급회화
영자신문(코리아타임스·아이비뉴스)
토익스피킹 / 수능듣기 탁월한 효과
중국어: 기초·중·고급회화
프리토킹 / 비즈니스 / 각종시험대비
(02)784-3305 | 011-9871-0582
이 스테파니아

관덕정순교자현양후원회원의날 미사

일시: 9.6(토) 17:00

주례: 교구장 조환길(타대오)대주교
문의: 관덕정, 254-0151

도보성지순례 및 순교자24위 시복감사미사

일자: 9.20(토)

장소: 가산산성~한티성지

미사: 15:00 예정

문의: 사목국, 250-3057

행사 | 모임

가나 피정

기간: 9.13(토) 14:00~14(일) 16:00

장소: 연화리 피정의 집

참가비: 1인 5만 원(선착순 30쌍)

신청마감: 9.11(목) 17:00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교육 | 모임

24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개설

기간: 9.4~10.2(매주 목) 5주간

시간: 9:30~14:30 / 회비: 10만 원

장소: 포항 덕수성당

주관: 교구 가정담당

문의: 봉사자, (010)6499-3114

대구 소공동체의 날 개최 및 수기공모

소공동체의 날: 10.11(토) 10:00

장소: 교육원 다동 대강당

회비: 5천 원, 마감: 9.23(화)까지

수기공모: 소공동체에 활동 체험수기

공모기간: 9.12(금)까지, 문의: 250-3056

한국천주교회사와 성지

기간: 8.29~12.19(매주 금) 18:30~20:30

장소: 교구청별관대회의실, 수강료: 20만 원

강사: 이찬우(다두) 신부

주최: 성지안내봉사회

문의: 봉사자, (010)2802-2703

뿌에리 간또레스 제20기 모집

문의: 255-4847

지묘성당 성서대학

강의지도: 이재수 신부

마르코복음과 바오로서간편: 매주 화 10:00

일시: 9.2(화), 문의: 986-0072

젊은이 사도행전반: 격주 수 20:00

일시: 9.3(수) / 문의: 김희정, (010)9372-6959

영적성장을 위한 느헤미야 영성학교 개설

개강: 9.15(월) 14강좌

일시: 매주 월요일 19:30

장소: 봉덕성당, 교육비: 3만 원

문의: (010)5303-5144

채용 | 안내

군위묘원 관리비(2차분) 납부 안내

2005.1.1.이전에 장례를 하신 묘주께서는 묘원관리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미납 시, 무연분묘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의: 교구청 관리과, 250-3003

군위묘원 성묘 안내

추석당일은 많은 성묘객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가급적 추석을 전후해서 성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마을입구 서행)

대구평화방송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 안내

일생을 하느님께 봉헌한 대구대교구 원로신부님들의 삶을 나누는 휴먼다큐 '임따라 사랑따라'를 방송합니다.(대구평화방송 홈페이지 다시듣기 가능)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12시

(김천 100.5MHz, 포항 96.9 MHz, 안동 100.7MHz)

9월 6일(토) 이성우(아킬로) 신부

9월 13일(토), 20일(토), 27(토) 이판석(요셉) 신부

※ 대구평화방송 라디오 광고 안내 (신자기업 우대)_문의: 251-2610 / 2621

큰 사랑, 큰 믿음!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이전 확장**
백내장, 노안, 근시교정 수술
원장 이호성(아오싱), 조영수(다미아노)
대구시 남구 월배로 468(대명동)
(구)달성군청자리
☎ (053)651-2233

(주)약령시사람들
경우고 명가(3대째)
◎ 추석명절 선물용 경욱고제품
◎ 공진단, 홍삼제품
교우님 특별할인 30%~50%
양대석(안토니오) 010-3528-8008
☎ (053)428-8002
www.약령시사람들.com (약전골목 내)

www.appleuro.com
에플비뇨기과
비뇨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임검진)
오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어네거리 에플타워 5층 TEL. 755-0888

유방·갑상선 전문 **여의사**
마리아유외과
Maria Breast Clinic
대표원장 김 정 경(안젤라)
반월당역 22번 출구 농협 3층
(주차 가능함니다)
예약전화 053)252-6875

이 원 의 료 기
혈압계 · 혈당계 · 휠체어 · 산소치료기
뜸 · 부항기 · 주열기 · 찜질기
체온계 · 욕창매트 · 환자용품 · 안마기
실버카 · 보호대 · 글루코사민 · 오메가3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니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 (053)256-2512(대표), 2513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 · 무릎을
치료하는 14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송현역 2번 출구

백두정형외과
http://baekduos.com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상근 베드로
신생아 세부전문의 배상영 미카엘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053-425-5919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